

한국농업신문 부사장 인터뷰(안)

- ☐ 매 체 : 한국농업신문
- ☐ 형 식 : 현장인터뷰(+서면)
- ☐ 주요내용 : 부사장님 소개 및 공사 사업 관련 현안사항
- ☐ 취재기자 : 연승우 국장, 최정민 부장
- ☐ 취재일자 : 23년 2월 13일(월), 14시
- ☐ 게재일자 : 23년 2월 17일(금)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 은 행 처

목 차

□ 부사장님 소개

1.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만여 쌀전업농에게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1
2. ‘농지은행 전문가’로 알려져 있을 만큼 농업에 대한, 농지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께 농업에 대한 의미는, 농지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 1

□ 농지은행관리원

3.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원 출범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범 당시를 이야기 해주신다면 ----- 2
4. 농지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농업계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농지은행관리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 3
5. 농지은행관리원이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 4
6. 올해 농지은행관리원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이 있다면 ----- 5

□ 한국농어촌공사

7. 올해 농지와 관련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 6
8. 올해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 7

9. 지난해 농지연금에 큰 성장과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8
10. 농업용수와 관련한 이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장 중요시 하는 가운데 공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업용수와 관련한 올해 계획이 있다면 ----- 9

□ 쌀전업농

11. 농민, 특히 쌀전업농과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께 쌀전업농 어떠한 의미인지 ----- 10
12. 쌀 수급불안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반응은 어떠한지 ----- 10
13. 농지임대, 경영희생 등 쌀전업농 사이에선 현실성 있고 기존의 쌀전업농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 11
14. 쌀 산업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 11
15. 마지막으로 6만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한 말씀 ----- 12

1. 6만여 쌀전업농에게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농업생산 비 증대, 경기침체, 노동력 약화, 빈번한 이상기후 등 어려운 대외적 환경 속에서도 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신 쌀전업농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전업농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농지은행 전문가'로 알려져 있을 만큼 농업에 대한, 농지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께 농업에 대한 의미는, 농지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 ☐ 농지는 식량안보라는 필수적인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 기능, 물관리를 통한 홍수방지,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한 환경보존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농업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농업은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삶 또한 지난 30여년간 농지가 있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또 조직에서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삶의 의미도 보람차게 만들어준 매개체라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소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원 출범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범 당시를 이야기해주신다면.

-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투기 방지’라는 국민 공감대와 여론의 높은 기대 속에서 설치된 만큼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추기 위해 21년 4월, 공사는 본사, 지방부서를 포함한 전문인력들로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여 정원 40명을 증원하였고 농지상시조사 등 신규 사업 예산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농업단체와 관련 전문가와의 많은 검토를 거쳐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나갔습니다. 신규 조직 신설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지난해 2월,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농지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농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농지은행관리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21년도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설되었습니다.
-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전에도 투기 예방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농지관리를 해왔습지만,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는 하반기에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25만ha의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농지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있으며 인사도 잦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이러한 지자체 농지행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추고 모든 농지(192만ha)를 대상으로 상시 조사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이용과 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장기방치 되거나 농업 경영 외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공된 농지정보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되고 지자체 조사결과 불법 취득·소유했거나 농업 외 타목적으로 이용된 농지는 행정 처분이 됩니다.

5. 농지은행관리원이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며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등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농지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집행하여 신규농업인의 영농유입과 정착, 위기농의 경영안정화, 고령농의 노후보장을 지원하였으며
- 농지의 취득·소유 관련 11,662ha, 이용·전용 관련 32,754ha 의 농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농지 1,576ha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에 제공해 작년 9월, 지자체 이용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또한, 관리사각 지대의 농지를 분석, 발굴하여 효율적 농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등기자료를 분석하여 30.5만ha라는 상속농지 규모를 산정하고, 국·공유지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발굴하여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의 제도권 편입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존 50년 간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농지원부 제도를 필지 중심의 농지대장 제도로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농지대장 전환을 총괄 지휘하여 지난 해 4월 농지원부에서 대장으로 100%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6. 올해 농지은행관리원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이 있다면.

- ☐ 정부에서 최근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농지전용 제도개선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보전 방향을 잇달아 제시함에 따라 공사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 농지전용협의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대상 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관련 영향 등의 검토·분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농지이용 및 농지전용 현황,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의 실태를 상시조사하고 농지의 유희화 방지 및 농지 활용 확대를 위한 상속농지, 국·공유지 등의 이용현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 ☐ 또한,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283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대장 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농지은행사업 분야는 농업인의 농지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농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임대수탁 제도개선으로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연금사업은 담보농지 이용효율화와 보장성 강화로 사업을 내실화하고, 경영회생 환매부담완화와 사업대상 확대로 사업을 활성화해 고령농과 위기농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올해 농지와 관련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 ☐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식량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심화되어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핵심인 적정 농지 면적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농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지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개선,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 올해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 우선 기후위기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① **치수능력확대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 저수지 중 저수용량 500만톤 이하인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홍수 배제능력을 확충하여, 대규모 이상 강우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경영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또한 ② **스마트팜인프라 조성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4지구(경북상주 등) 준공, 스마트원예단지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농업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③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④ **어촌 新 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간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 공간을 일터·삶터·쉼터로서 다원적으로 조명하고 재구조화하여,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 지난해 농지연금에 큰 성장과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지연금사업은 농촌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도입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지를 지을 수 있으며,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농지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더 많은 농업인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지난해 2만 번째 가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10. 농업용수와 관련한 이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운데 공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업용수와 관련한 올해 계획이 있다면.

- 최근 6개월 강수량이 전국평균 932mm로서 중부지방은 평년 이상이지만 남부지방은 평년의 62~78%로 적은 상황입니다. 저수율로 보면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7%로 정상 수준이지만 전남북 지역은 평년의 78%로 다소 낮으므로
-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영농기를 앞둔 4월 말까지 충분한 농업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양수저류, 직접급수 등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133개소 저수지에 1,900만 톤의 용수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관련

11. 농민, 특히 쌀전업농과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께 쌀전업농 어떠한 의미인지.

- ☐ 쌀전업농 분들은 우리 공사와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있어야 우리 공사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일들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발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쌀 산업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 쌀 수급불안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반응은 어떠한지.

- ☐ 지난해 9개 본부, 93개 지사의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쌀값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과 쌀소비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농지은행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타작물 재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안정 대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농지은행 또한 정책 기조에 맞춰 쌀값 하락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농지임대, 경영희생 등 쌀전업농 사이에선 현실성 있고 기존의 쌀전업농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 ☐ 기성세대 농업인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청년농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기존 임차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4. 쌀 산업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 ☐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통한 쌀값 안정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자급률까지 높이는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농지은행 사업을 지원할 때, 타작물 재배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15. 마지막으로 6만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한 말씀.

- 지난해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움이 산적한 농업 현실 속에서 공사는 4050세대 등 농업인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쌀전업농 여러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은행사업 발전의 주역이고, 한국 농업발전에도 그 공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과 신규 진입농 분들의 육성 또한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쌀전업농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농업인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